

# ‘술한잔 얻어 마셨다’ 55만원 물어내

지방선거 전남 ‘과태료 폭탄’ 잇따라

30~50배 부과… 유권자 주의 필 요

민주당 당원 A씨는 지난해 8월 산행모임에 참석한 뒤 일행 21명과 함께 여수시장 출마 예정자 B씨로부터 노래방에서 술 한잔을 얻어 마셨다가 선거법 위반으로 적발됐다. 선관위는 노래방에서 접대를 받은 22명 가운데 선거구민인 A씨 등 17명에게 총 950만~4천530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. 매주 한잔, 노래 한 곡에 1인당 55만원 9천 90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 것이다.

당시 노래방 사용료와 맥주를 포함한 가격은 41만여 원 정도로, 총 123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돼야 했지만, 참석자 중 선거구민이 아닌 5명이 접

대받은 금액은 제외되면서 ‘다행히’ 과태료도 줄어들었다. A씨는 B씨가 시장 출마 계획이 있는 출도 모르고 회원들을 뒤 따라갔다가 딱 한잔의 술을 마셨다고 억울함을 호소했지만, ‘때늦은 후회’밖에 되지 않았다. 현재 선거법위반 혐의의 수사는 진행중이고, A씨 등은 과태료 부과에 대해 이의제기를 해놓은 상태다. 또 시장 출마를 준비했던 B씨는 이 일로 시장 불출마 선언까지 했다.

6·2 지방선거가 다가오면서 지방선거 출마예정자로부터 술·음료·식사 접대 등을 받았다가 받은 액수의 30

배~50배를 내야하는 이른바 ‘과태료 폭탄’을 맞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.

전남도 선거관리위원회는 무안군 수선거 출마 예정자인 지인으로부터 저녁 식사로 삼겹살을 얻어먹은 쟁족 반 조합원 7명에게 총 27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. 지금까지 6·2 지방선거와 관련, 과태료 사전 통지 사례는 3건에 이르고 있다. 무안의 경우 저녁 식사로 삼겹살과 소주 등 1인당 1만2천800여원 어치를 얻어먹었다가 과태료로 38만5천여원을 내야 할 처지에 놓였다.

앞서 지난해 7월에는 목포시의원 C씨가 배드민턴 회원 14명에게 노래방에서 18만 원 상당의 접대를 했다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적발됐다. 14명 중 8명은 C의원 선거구민이 아니어서 과태료 부과 등이 적용되지 않았지만, 6명은 선거구민이라는 점에

문에 1인당 38만5천여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됐다.

이처럼 선거를 앞두고 예비후보 또는 예비후보 지인들을 통해 밥 한끼, 맥주 한잔 잘못 얻어먹다가는 얻어 먹은 가격의 최고 50배까지 물어야 하는 ‘낭패’가 뒤따를 수 있다. 따라서 선거기간 동안 어떤 형태로든 입후보 예정자로부터 향응을 제공받을 경우 선거법에 저촉되는 만큼 유권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.

도 선관위 관계자는 “받은 액수의 50배를 물어야 하는 규정이 지나치다는 지적도 있지만, 돈 선거 주방을 위한 극악 처방”이라며 “선거기간 중에 정당 후보자와 관련된 식사접대는 거의 과태료 폭탄으로 되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사소한 음식 약속이라도 조심해야 한다”고 말했다.

/최권일기자 cki@kwangju.co.kr

# 농어촌버스 요금 8.6% 오른다

전남지역 시내버스 요금도 인상 추진

전남도내 시내·농어촌버스 요금이 오는 4월부터 평균 8.6% 인상될 전망

이어서 가뜩이나 꽉막한 서민 실집살

이가 더욱 힘겨워질 것으로 보인다.

전남도는 “이번 주 ‘시내·농어촌버스 운임·요율 조정’을 위한 소비자정책위원회를 열고 평균 8.6% 오른 버스 운임·요율 인상안에 대한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할 예정”이라고 21일 밝혔다.

전남도가 상정한 요금 조정안은 지난 2008년 전남버스운송사업조합이 요구한 43.8%의 요금 인상안에 대한

타당성 검증을 비롯해 유가, 인건비, 물가 상승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마련한 것이다.

조정안에 따르면 시내버스 요금은 일반의 경우 현행 1천원에서 10% (100원) 오른 1천100원으로, 좌석버스는 현행 1천200원~1천500원에서 7.2% 오른 1천300원~1천650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이다.

증·고생 요금도 현재 800원에서 14.3% 인상된 900원으로 책정했고, 초등학교 학생들의 요금은 현재 450원에서 50원(11.1%) 인상하는 방안

이 포함됐다.

전남도는 요금 인상안에 대한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의 최종 승인이 이뤄지면 각 시·군에 시내·농어촌버스 운임·요율 기준안을 통보, 오는 4월1일부터 변경된 버스 요금을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.

전남도 관계자는 “버스 요금 인상에 대한 용역을 실시한 결과, 유가 및 인건비·물가 상승 등을 고려할 때 29.6%의 인상 요인이 생긴 것으로 나타났다”면서 “용역안 대로 인상할 경우 도민들의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조정안을 마련했다”고 말했다. /김진일기자 dok2000@



보행교로 바뀐 남광철교

이 설치되며 오는 28일 완공예정이다.

광주시 동구 남광주 시장과 남구 양립동을 연결하던 철교가 시민들의 통

행이 가능한 보행교로 새 단장되고 있다. 보행교는 난간과 조명시설 등

/김진수기자 jeans@kwangju.co.kr

## 전남 ‘고속버스 환승’ 터미널 확대

내달 2일부터 목포·순천·영산포 등 12곳서 가능

고속도로 휴게소에서 버스를 갈아 탈 수 있는 환승 제도가 전면 확대된다. 전남도는 21일 “국토해양부가 시범 운영하고 있는 고속버스 휴게소 환승 제도가 오는 3월 2일부터 확대돼 호남고속도로 43개 전 구간에서

매일 운영된다”고 밝혔다. 호남선은 기존 18개 노선에서 시범 운영을 해왔다.

고속버스 휴게소 환승제도는 지방에서 운행노선·횟수가 적은 수도권 중소 도시 노선을 이용하기 힘든 점

을 고려해 고속도로 휴게소에 환승점유율을 설치해 갈아탈 수 있도록 한 것이다.

전남도 내에서는 목포와 순천버스 터미널을 비롯, 영산포·강진·여수·진도·완도·해남·녹동·담양·보성·영광 등 12곳에서 서울이나 수원으로 향하는 버스를 이용해 천안~논산간 고속도로 정안휴게소까지 간 뒤에 경기도 고양이나 용인, 수원, 의정부, 성남, 인천, 안성 등으로 가는 버스로 갈아 탈 수 있게 됐다.

이에 따라 호남선 이용자와 경인지역으로의 여행 시간이 평균 67분 단축되고 평균 비용도 2천600원이 낮아지는 등 한결 편리해질 전망이다.

### 읍·면·동 주민등록

#### 오늘부터 일제정리

행정안전부는 22일부터 4월20일까지 58일간 광주·전남을 비롯한 전국 읍·면·동에서 주민등록 일제정리 작업을 한다. 이번 작업에서 전국 읍·면·동의 조사반은 모든 가구를 방문해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가 일

광주지법(법원장 안영률)은 21일 법원에 선거전담 재판부를 신설하고, 10년 이상 법관을 형사단독 사건에 집중 배치하는 등 재판 사무분담을 단행했다.

이번 사무분담은 22일자로 단행된 법관 인사에 따른 것으로, 6·2 지방선거를 앞두고 형사4부(부장판사 정창호)를 선거전담 재판부로 지정했다. 이에 따라 형사4부는 선거가 치러지는 오는 6월 이후부터는 선거사건만을 전담 처리하리라. 광주지법은 또 최근 법조계 안팎에서 불거진 잇단 판결 시비와 관련, 일반 형사사건을 맡는 형사 단독판사에 경력 10년 이상의 ‘고참’ 판사들을 대거 배치했다.

/최경호기자 choicekwangju.co.kr

치하는지를 확인하고, 무단 출출자와 허위 신고자는 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과태료(10만원)를 부과한다.

일제정리 기간에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 신고하면 과태료 절반(5만원)을 경감해준다.

행안부 관계자는 “6·2 지방선거 등 행정 사무를 적절하게 처리하고 주민 생활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정리 작업을 하기로 했다”고 설명했다.

/김자율기자 dok2000@kwangju.co.kr

이 예산은 우수의료기술 개발 및 지역 의료기관의 해외 홍보, 인프라 구축 등에 활용된다.

전남도는 화순전남대병원과 연계, 이번 사업을 유치함으로써 고관절 메디컬센터 육성 및 천혜의 관광자원을 활용한 의료관광의 인프라 구축에 적극 나서겠다는 전략이다.

화순전남대병원의 경우 전국에서

고관절 수술 실적 1위에 이르는 등 고

관절 분야에서 경쟁력이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.

전남도는 이를 위해 각 분야별 전문가로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한편, 사업 추진을 위한 TF팀을 가동하는 등 사업 유치전에 본격적으로 뛰어든 상태다.

/김자율기자 dok2000@kwangju.co.kr

광주엑스포, 여행사 24곳과

관람객 유치 투자 양해각서

## 화순 전남대병원 외국인 환자 유치

### 전남도, 복지부 지원 사업 신청키로

화순 전남대병원이 외국인 의료관

광 메카로 집중 육성된다.

전남도는 21일 “보건복지부가 외국인 환자를 적극 유치하기 위해 전국 자치체를 대상으로 공모중인 ‘우수의료기술 육성 지원사업’에 신청서를 낼 예정”이라고 밝혔다.

우수의료기술 육성 지원사업은 정부가 외국인 의료 관광객 유치를 적극 지원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으로, 4개 자치체를 선정해 국비 15억원의 예산을 지원하게 된다.

전남도는 이를 위해 각 분야별 전문가로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한편, 사업 추진을 위한 TF팀을 가동하는 등 사업 유치전에 본격적으로 뛰어든 상태다.

(재)광주세계광엑스포는 지난 18일 ‘2010 광주세계광엑스포’ 서울·대전·대구·부산 등 4개 권역 주관 여행사 24곳과 관람객 유치를 위한 투자 양해각서(MOU)를 체결했다.

이들 주관 여행사 관계자들은 MOU를 체결한 뒤 18~19일 광엑스포 주행사장인 상무시민공원 내 위치한 빛주제영상관에서 상영하는 3D 입체 애니메이션 ‘빛의 씨앗(SEED LIGHT)’ 관람하고 국립 5·18민주묘지, 담양 죽녹원 등 광주지역 주변 관광자원을 둘러봤다.

/윤현석기자 chadol@kwangju.co.kr

## 광고접수안내

• (062) 227-9600  
• FAX: (062) 227-9500

### 자본 감소 및 주권제출 공고

본 회사는 2010년 02월 18일 임시주주총회의 결의로 자본의 총액 금 50,000,000원으로 감소하기로 하고 1주의 금액 금 5,000원의 보통주식 30,000주를 환급 소각하여 날행부수 보통주식 60,000주로 감소 할 것을 결의하였다.

이 자본감소에 이의가 있는 제작권 및 구주권을 기진 주주는 이 공고 게재 다음날부터 1개월 이내에 이의 제출 및 구주권을 본사에 제출할 것을 이에 공고함.

2010년 2월 22일

공고인 삼진기업주식회사  
전남 광양시 태인동 1657-12  
대표이사 최 문 용

## 공장 매매

### 위 치 함평 학교 농공단지내

■ 대 지  
6,345㎡(1,920평)

■ 건 물  
1,685㎡(510평)

■ 전 기  
계약전력 200㎾

■ 호이스트  
3+3TON, 5TON(협의)  
현재 가동중

연락처 : 011-612-2823  
이메일 : diid71@hanmail.net

## (제작제·재작자) 국비교육생모집

### JS 쿠진 요리학원

● ● ● 방문상담 대 환영 합니다! ● ● ●

○ 개 강 2월 1일 ○

훈련 종류	훈련과정	훈련대상
제작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한식과정</li> <li>• 일식과정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주부, 실업자</li> <li>미취업자</li> <li>대학졸업 예정자</li> </ul>
재작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한식과정</li> <li>• 양식과정</li> <li>• 일식과정</li> <li>• 중식과정</li> <li>• 제과·제빵과정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고용보험</li> <li>기입 재직자</li> <li>(정규직·비정규직)</li> </ul>

\* 계좌제 과정은 광주고용센터(609-8500)에서 카드발급 신청을 해야 합니다.

○ 상담 전화 ○

226-5500

워크숍  
기획<br